

활기 띄는 印度의 유전개발

印度의 유전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석유자본(메이저)인 세브론과 텍사코 兩社가 印度정부와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未開發된 孟加拉灣의 유전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도는 해마다 原油 부족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自主石油開發政策을 바꾸어, 외국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이제야 겨우 그 첫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印度정부는 90년대가 되면 石油自給도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유의 수입증대

印度는 지난 70년대 봄베이하이의 상업화에 성공했는데 이 유전의 산유량은 80년대초 연간 1천만톤에서 85년에는 3천만톤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그 후 이 유전의 산유량은 限界點에 다달아 매년 原油不足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은 승용차등 민생용 수요의 증가와 原油를 원료로 하는 肥料産業·화학공업의 성장에 비해 봄베이하이에 이은 신규유전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印度는 80년대 중반까지 전소비량의 2/3를 自給하였지만, 현재는 원유수입이 약 2천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제7차5개년계획(85~89년도)에 따르면, 금세기 말경 원유부족량이 약 2,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石油專門家중에는 4,000~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현재도 원유수입액은 무역적자의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부족은 印度경제의 중대한 제약요인중의 하나이다. 印度는 지금까지 일부 예외가 있지만, 國營企業을 중심으로 自主的인 유전개발을 시도하였다. 제6차5개년계획기간(80~84년도)에도 약 400개소에서 시굴을 행하였지만, 天然가스만 부수적으로 발견되었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석유개발의 개방

이에 따라 86년도 3월 政策을 전환, 외국기업이나 자국의 民間企業에도 유전개발을 개방하였으며 특히 메이저들의 印度진출을 요청하게 되었다. 당초, 規制가 엄격하여 印度진출을 꺼리던 외국기업이 많았지만, 稅制面에서의 우대조치와 국제시장에 연동되는 가격설정 등에 따라 최근에는 잇달아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첫째로, 작년 12월 버뮤다의 인터내셔널 피트롤리엄이 孟加拉灣 연해의 개발에 착수했다. 금년 2월에는 印度의 半官半民인 BHP石油가 케랄라州 근해의 유전개발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 또한, 세브론과 텍사코가 국영기업인 오일 인디아(OIL)와 제휴하여 孟加拉灣의 유전개발을 진행중이며, 인도정부와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이외에 오리사州 마하나디江유역의 5개광구에 대한 유전탐사도 진행중이다.

• 유전개발 현황

폭과조사, 試掘등은 세브론과 텍사코가 청부를 맡았다. 만일 시굴단계에서 油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兩社는 그 단계에서 손을 뗄수도 있다. 또, 유전이 발견될 경우 배분비율은 메이저 양사가 60%, OIL가 40%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예비조사가 끝나, 신규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印度는 80년과 82년도에도 일부 유전개발을 外國企業에 개방하였지만, 그 당시는 조건이 까다로워 세브론이 겨우 1개광구를 시굴하는데 그쳤다. 印度정부는 이번의 개발조건의 완화로 세브론, 텍사코에 이은 외국기업의 진출에 기대를 갖고 있다. □

〈日本經濟新聞〉